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작품 철거된다

2010년 설치 이래 10년 만에 “작품 낡고 비둘기 서식 민원” 건축 미술품 제외 실태조사 도내 831개 공공미술품 확인 설치·철거 관련 지침은 부재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외벽을 감싸고 있는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 10년 만에 철거될 예정이다.

이상국기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는 조형물이 10년 만에 철거될 예정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최근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작품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공사 업체를 선정해 조만간 철거와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터미널 공공미술 작품은 제주도에서 3억원을 들인 ‘아트스케이프 제주’ 프로젝트로 2010년 설치됐다. 해당 조형물은 떠남과 돌아옴,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담아 터미널 건물 앞면 외관에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길’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기에 할머니와 손자 형상을 통해 다가

올 버스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기다림’도 터미널 입구에 세워졌다.

(주)제주종합터미널 관계자는 “작품 설치 당시 5년만 그냥 놔두기로 했는데 연장하며 지금까지 왔다”며 “제작 시기가 오래돼 아간 조명이 켜지지 않는 데다 비둘기 서식지로 둔갑하면서 민원이 잇따라 철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또 다른 공공미술 작품인 터미널 건물 서쪽 이미지월이 잦은 파손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철거된 일이 있다.

이번 정비 사업에는 도비 1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조형물을 철

거한 뒤 페인트칠, 창호 설치 등이 이루어진다.

앞서 제주문화재단은 2016년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22곳에 대한 세척·보수를 진행했고 서귀포시 문화공원 타임캡슐, 터미널 이미지월을 철거시켰다.

2017~2018년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생 조사팀을 꾸려 도내 공공미술 실태를 파악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품을 제외하고 조사했다. 2018년 말 기준 공공미술 작품 831개가 확인됐다.

하지만 공공장소를 뻗던 존치 기간, 정비 계획을 명시한 사례가 드물고 참여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형체를 투입해 설치해 놓고 훗날 ‘홍물’로 취급받는 일도 있었다.

제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공공미술 실태조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에서 작품 훼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미술 설치, 철거 등에 따른 관련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낮달에 비친 산지천의 과거와 현재

산지천갤러리 공모 기획전 작가 3인 아티스트 토크도

제주시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산지천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획전 ‘낮에 있는 달’ 작가들과 만나 창작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달 17일 오후 4시 갤러리 1층에서 아티스트 토크가 이루어진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산지천갤러리 하반기 기획공모로 마련됐다. 스톤김, 신예선, 최성임 3명의 작가가

밤과 낮의 시공간을 잇는 낮달의 특성을 산지천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에 빛대 평면과 입체로 풀어냈다.

스톤김은 ‘침묵의 색깔들’ 등으로 인간과 인간, 장소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작용에 대한 사진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공예와 디자인 영역을 넘나들어난 신예선은 ‘네모+주름’ 등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작가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한 이질성과 비정주성을 여러 소재를 이용해 다뤘다. 최성임은 건물 외벽 ‘황금낭’ 등으로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도 계속될



신예선의 ‘네모+주름’.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관조를 표현했다. 전시는 3월 15일까지(월요일 휴관) 계속된다.

이날 아티스트 토크는 전시기획자 김혜영씨가 진행을 맡는다. 산지천갤러리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쉽게 풀어쓴 제주 자생 난초과 식물

국립산림과학원 책자 발간 자생지 확인 68종 특징 정리

제주도에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을 알기 쉽게 풀어쓴 책자가 나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펴낸 ‘제주의 숲과 난초’다.

현재 제주도에 자라는 난초과 식물은 81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난초과 식물의 72%를 차지하는 규모다. 좁은 지역에 이처럼 다양한 난초들이 자랄 수 있는 배경엔 제주의 독특한 환경이 있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 높이를 갖는 한라산이 섬 중앙에 놓여

있고 해발고도에 따라 기후 조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아열대에서 한대성 식물까지 복합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난초류 역시 한라산의 해발고도와 식생에 따라 종 분포가 다르다.

이 책은 81종에 이르는 난초과 식물 중에서 자생지가 확인된 68종을 병아리난초에서 비비추난초까지 학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담고 있다. 종마다 국명, 학명, 국명이명과

종의 원명 등을 정리했고 생장형태, 개화기와 결실기 등의 특징을 소개했다. 종의 생태적 습성, 전 세계적 분포, 제주도내 자생지 등도 적어 놓았다.

난초 식물은 주로 여러해살이풀이다. 땅 위에 자라는 지생, 돌이나 나무 줄기에 붙어 사는 착생,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해 낙엽층 등의 유기물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부생 등의 특징을 보인다. 비배품. 진선희기자

시로 읽는 43 (42)

한라산 빼꾸기

고정국

한라산 잠목 숲에 텃새 한 마리 숨어서 산다 외가덕 대물림에 늙어서도 목청이 고운 사삼 때 청상이 됐던 올해 칠순 이모가 산다

등고 있지만 이모님 원통한 숲엔 오뉴월 서리도 내렸으리

산이 산을 막고 무심이 무심을 불러 해마다 빼꾸기 소리 제삼자처럼

반백년 나았은 산은 등산처럼 말이 없고 “꺼꼭 꺼꼭 꺼꼭 꺼꼭” 숨어 우는 우리 이모 간곡히 제주사투리로 되레 나를 타이르시네

4·3광풍이 불어 닥친 섬. 주민들은 대나무 마디가 타는 소리에도 놀라 숨어들고, 남편시신을 수습하던 아낙은 하늘만 쳐다본다. 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낙은 ‘훗설허민 추물락추물락’ 하고 아낙은 산부대의 습격을 막으려 순번제로 ‘입초 사명’ 살았다. 198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입성한 시인은 그의 시조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마디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치열함이다. 아아, 시인이 전하는 “꺼꼭 꺼꼭 꺼꼭” 숨어 우는 ‘우리 이모’가 되레 제주사투리로 시인을 타이르신다고 했다.

4·3때 청상(靑孀)이 된 여인이 어찌 이모뵈이겠는가? ‘살아남은 여인들은 ‘연좌제’와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등 온갖 치욕과 분노, 좌절과 체념을 겪어야 했다. 4·3학살극은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를 심어주었고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을 크게 변화·왜곡시켰다. 그 사태

에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로 살아온 많은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겪어 온 기막힌 세월을 털어놓은 후엔 대개 “살았지만 살아지더라(살다 보니까 아들을 잃은 아낙은 ‘훗설허민 추물락추물락’ 하고 아낙은 산부대의 습격을 막으려 순번제로 ‘입초 사명’ 살았다. 198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입성한 시인은 그의 시조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마디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치열함이다. 아아, 시인이 전하는 “꺼꼭 꺼꼭 꺼꼭” 숨어 우는 ‘우리 이모’가 되레 제주사투리로 시인을 타이르신다고 했다. 고향 제주가 아닌 바다 건너 낯선 섬까지 간 이유에 대해 “수평선은 나에게 절망이며 감옥이었던 것. 그 한계선을 넘기 위해, 제주를 떠나 전라도의 끝 섬 당산도 민박 집에 노숙복을 꼈다. 그런데 이곳 수평선은 더 슬픈 시선으로 다가와 어느새 나의 친구가 되려 한다”고 이야기 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5개 유형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0년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품다락토요문화학교지원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사업 5개 유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가 지역중심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품다락토요문화학교지원사업과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은 기획공모(다년지원형)를 신설했다.

제주문화재단은 이달 16일 오후 4시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셋마당, 17일 오후 4시 예술공간 이아3층 창의예술교육실에서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나머지 4개 공모 분야도 사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단, 유아문화예술교육은 2월 3~17일 접수한다. 문의 064)800-917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대한사람의 겨울여행

강원도 무장애 여행

강릉 | 고성 | 속초 | 양양

강원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장창근 <낙산사의아침>

구분	화요일 출발	금요일 출발
2박 3일	₩ 275,000	₩ 315,000

무장애 여행 대상자 장애인, 65세이상(1955년 이전 출생),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을 최소 1명 동반하는 최대 4인 이내의 여행객 포함사항 및 특전 국내선항공 및 현지교통, 5성급 특급호텔 숙박 1회(2박3일에 한 함), 식사(전 일정 조식 및 중식, 자율석식 1~2회), 강릉~정동진 열차 탑승 체험 및 테라로사 커피박물관 해설사투어(2박3일코스에 한 함), 자율석식용 강원상품권 증정(1만원~2만원) 문의 퍼시픽투어 064-747-8099, 제주홍익여행사 064-746-2200, 굿모닝제주투어 064-723-3350

